

말씀: 히브리서 11:1-22

요절: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앙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곳에 보존(保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성을 떨쳤거나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으며, 믿음으로 역경 가운데서 은총의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질과 증거를 얻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과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I. 믿음의 본질 (1-3)

저자는 10: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한 후 11장에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볼 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는 실체(the substance) 또는 확신(the assurance)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상은 믿는 대상 면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확신은 믿는 자의 자세 면에서 주관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허망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라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잘리지 않는 좋은 직장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사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경제안정이 1순위였지만, 요사이의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과정에 불과하지 우리가 바라야 할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어야 하며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이 로마 식민통치하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1: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세계선교 명령을 영접하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비전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에베소를 개척한 후에는 얼마든지 노년을 편히 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때 로마 정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행19:21).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비전 가운데 로마의 셋집에서 위대한 1대1 전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결국 거대한 로마제국은 복음화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는 돈이 아니지만 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엘랑코스’로서 증명(proving), 확신(convic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세계에는 보이는 현상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의 세계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것처럼 증명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배의 갑판에서 두 사람이 서서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한 사람은 멀리 있는 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설명합니다.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지만, 망원경으로 본 사람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제시한 것들은 모두 허구적이고 모호하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망원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믿음이 없어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지고 수면제 역할을 하는 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는 엄청난 보화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줍니다. 믿음이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믿음으로 산 조상들을 의미하고 ‘증거’는 divine approval, commend for로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고 돈을 잘 벌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자를 인정하시고 귀히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신앙이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계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생각하는 가치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존재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가진 복된 존재가 됩니다. 3b절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보이는 현상세계가 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 II. 증거를 얻는 믿음 (4-7)

**첫째, 아벨의 믿음 :** 4절은 최초의 믿음의 선진(先進)인 아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린 제사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는 것을 보면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죄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려면 진실 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시 51:17). 아벨은 하나님의 공훈만 의지하고 다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회개치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회개하는 심정이 없이 딱딱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이성을 잃고 돌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은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말해주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아벨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그의 삶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면 ‘나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창4:13,14)라는 가인의 비통한 말만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가장 먼저 순교자 아벨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모세나 다윗 같은 영웅적인 인물보다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간 아벨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태어난 순서가 빠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릴 만큼,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미국 휘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많은 미국교회들은 유능하고 설교 잘하는 그를 자기교회로 청빙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1955년 9월, 29살의 엘리엇은 선교동역자 다섯 명과 함께 선교회를 조직하여 인디언 부족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비행기로 이 지역의 상공을 떠돌며, 식량, 의약품, 의류들을 공수 낙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답례품으로 앵무새, 땅콩, 원숭이 꼬리들을 올려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된 청년들은 마침내 그 땅에 착륙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주일도 채 못 되어 그 5명의 청년들은 몸에 화살이 꽂힌 채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짐 엘리엇, 그에게는 이미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학시절에 썼던 일기장의 맨 첫 장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기꺼이 주님과 양 무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이미 대학시절부터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나 짐 엘리엇, 그들은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가를’ 실제로 짐 엘리엇이 순교의 피를 뿌린 아우카 지역에서는 1992년 마침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75명의 인디언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번역 봉헌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아우카 지역의 선교역사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과 짐의 친구로서 함께 순교한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인 라헬 세인트와 아버지가 순교할 때 5살밖에 되지 않았던 네이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이 순교한지 37년 만에 드러진 아우카 지역 봉헌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세 명은 37년 전 그 다섯 명의 선교사들을 자기 손으로 죽게 한 바로 그 인디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세 명은 아우카 교회를 이끌어가는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짐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는 결코 무위(無爲)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순교로써 전한 무언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아우카 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축복 받고 모든 것이 잘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에녹의 믿음 :**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아들은 므두셀라인데 이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When he is gone, judgment will come)는 뜻입니다. 므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과연 그가 죽은 후 그의 손자인 노아 때에 홍수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므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므두셀라를 낳고 난 후 삶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클라르 루스(Clar Booth Luce)는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말할 수 있고, 세종대왕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훌륭한 왕으로 말할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서 불경건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에녹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4,15절 말씀은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한 생활을 하며 의를 전파하는 생활을 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법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부모 친척들과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로 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생활을 심히 기뻐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 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낙원까지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영접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일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일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생득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만물을 통해 그의 신성과 창조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who I am)고 계시하셨습니다.

②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치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양을 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창15:1). 사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큰 상급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곳곳하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아의 믿음 :**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가득 차 넘침)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롯의 사위와 같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방주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방주 짓는 노아를 미친 놈, 어리석은 놈 등 갖은 조롱과 멸시를 했지만 그는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홀로 끝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방주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고, 또한 온 세상의 불신앙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後嗣-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생각이 모자라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홍수 심판 후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생각이 깊은 지혜로운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 III. 약속을 믿는 믿음 (8-19)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3분의1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3분의1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세어 보았더니 무려 309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7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8)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관계를 맺으심으로 인류역사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8) 이 말씀은 창12:1-4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문화의 발달과 함께 죄악도 관영하여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죄악 된 본성을 좇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한 마디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류 구원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12:1,2).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장엄한 인류구원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한 큰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단지 짙막한 약속의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또한 목적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지도 않고 막연히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쓰며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의 은총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를 부르사 구속역사에 복의 근원으로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나아갔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310장)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장막생활(9-10) :**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居留-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9)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아무도 살지 않는 에덴동산과 같을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기가 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나그네가 이민족의 땅에서 영주권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생활은 늘 자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생활을 갖기가 힘듭니다. 또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자녀교육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장막생활은 안주하지 않고 군인과 같이 주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떠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동성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주하고자 할 때 심령이 부패해져서 무기력해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쓸모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장막생활을 하게 되면 늘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막생활이란 나그네 생활이요, 사명을 중심으로 한 사명인의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은 당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당대에 고생을 많이 하면 나는 고생을 하지만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개척정신과 투쟁심과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나약하고 의존적이 되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는 역사성의 결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후손들도 장막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웃과 후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너와 네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역사부재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룯과 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후배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의 작은 유익에 연연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 장막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 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10) 그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인간의 최대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설하신 나라로서 낙원이라 일컬어집니다. 이 낙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本郷)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이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불탔기 때문에 기쁨으로 장막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잉태하는 믿음(11-12):** 11절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창18:10), 사라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간 조건을 뛰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때 그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12)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나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사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존 게디(John Geddie, 1815-1872)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양의 사도'라 불리우는 선배 선교사 존 윌리엄스가 남태평양 선교에 헌신하다 순교한 것에 감동을 받고 1848년 아내와 함께 뉴헤브리드즈라는 곳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식민종들이 많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가 소천했을 때 그의 비석에는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가 1848년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신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주님의 품에 안길 때는 단 한 사람의 식민종도 없게 되었다"** 그가 24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미개한 식민종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존 게디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 때문에 섬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포기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사고 방법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어떤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여건이 되고 형편이 나아져야 복음역사도 섬기고, 양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좋아지면 놀러 다니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것저것에 매이고 갇혀 있을지라도 믿음과 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양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진심을 쏟아 부어서 도운 양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제자들이 됩니다.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중에 더 시간이 많고 여유 있고 넉넉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직장일은 많을 것이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이런 저런 십자가가 많을 것입니다. 캠퍼스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도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야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무익한 자도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유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캠퍼스 흉악한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훌륭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13-16):** 13-16절은 조상들의 믿음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생활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당대에는 약속어음은 받았으나 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돈으로 막벨라 굴을 사야 했습니다.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부도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이 성취된 줄 믿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함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으나 약속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을 초월했습니다. 이는 약속 자체보다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약속에 대한 영적의미를 깨닫고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약속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출3:15b).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輕蔑-깎보아 업신여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삼상2:30b).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빛나는 한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섯째, 이삭을 바치는 믿음(17-19):** 17-1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성숙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결과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를 번제(燔祭)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불합리성을 따지며 마음에 쓴 뿌리를 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창9:6)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윤리적으로 모순이었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영적질서를 지키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을 때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기를 부르시고 자신을 키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능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삭을 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 IV. 축복하는 믿음 (20-22)

20,21절에는 이삭과 야곱의 축복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손자들이기 때문에 12지파의 조상의 대열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삶을 종결짓는 시점에서 유언과 같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손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벌들이 자식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 줌으로써 자식들이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22절은 요셉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17세 때 애굽에 와서 110세 때 죽었으므로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그중에서 80년 동안 총리로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 문화에 젖어 애굽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선진국 애굽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고 그때 자기 해골도 가져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소망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볼 때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생활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바로 생활이고, 생활이 바로 믿음으로써 일상적인 삶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봄으로(by sight)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by faith) 살았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믿음은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forward-looking faith)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소극적으로 중심만 지키는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므로 믿음의 증거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